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대강절 연속기도(18일-23일)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고 연속기도표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학교 종강발표회가 12일(화) 오후 7시에 교육관에서 있고, 저녁식사는 오후 5시에 자연예배당에서 식사합니다.
- 공동체학교들이 방학을 하고 기말평가 학부모면담을 시작합니다.
방학일 : 꾸러기학교(20일) 어린이학교(13일) 멋쟁이학교(9일)
-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기 총회가 14일(목) 새이레기독교학교에서 교육비전(기학연 법인) 창립 총회가 14일(목) 경신고등학교에서 각각 모입니다. 대안교육운동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제 40 - 50 호

2023년 12월 1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결혼기념)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예찬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모이기 시작한 방모임과 그에 따른 지킴이, 주일 예배 찬양과 설거지 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하루, 일주일, 한 달들이 엮여져서 다 지난 지금에서 돌아보면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달리는 말 위에서 산천을 보는 주마간산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하기도 하고, 마라톤이나 이어달리기와 같은 달리기 경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달리기를 기억하면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했던 달리기가 생각납니다. 운동을 잘 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때에 매번 달리기를 하면 꼴찌였습니다. 체육시간에 100m달리기 기록을 측정하면 28초로 반에서 제일 늦었습니다. 당연히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은 매번 꼴지만 하는 친구가 안쓰러웠는지 달리기를 하다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명이 끝인 지점에서 서너 발 남긴 곳에서 기다려 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뒤에서 1,2등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달리기를 기억하는 것은 4학년 때 달린 미션 달리기였습니다. 달리는 중 쪽지에 적혀있는 미션대로 들어오는 경기였습니다. 달리기가 항상 느렸던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천히 보였을 경기를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해서 미션지를 뽑았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는 내 미션은 담임선생님과 함께 뛰기였습니다. 쑥스러움을 많이 타던 저는 관중석에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미션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는 나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그 결과 2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학용품품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달리기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어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여 선수로 될 수는 없었지만 이어달리기에서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청백 두 팀으로 나누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도중 지고 있는 팀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늦게 달리는 사람이다 싶으면 다음 선수가 점차 앞으로 가서 바톤을 받아 한 바퀴보다 많은 거리를 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선수가 마중을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은 거리를 감당하면서 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待降節), 대림절(待臨節) 혹은 강림절(降臨節)입니다. 영어용어 The Advent는 도착이나 오다를 의미하는 Adventus에서 유래했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의 초와 걸개가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더해집니다.

갑자기 달리기가 생각나는 데는 한해가 그만큼 빨리 갔다는 것이 생각나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마중 나와서 나를 이끌어 주었던 선생님의 모습에서와 이어달리기에서 마중 나오는 모습이 지금 교회의 절기와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다 못해 구원하고자 자신이 직접 마중을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대강절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기도 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중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중 나가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

< 마태복음 2장 10-1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183 315 90 / 312

기도 :

성경 : 시편 25편

제목 :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1. 내용: 기다립니다. (What)

<문단구분>

1~4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5~20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21~22 내 영혼이 주님“만” 기다립니다.

2. 의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 (Why)

1)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2) 기다림은 적극적인 마음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주님을 가장 기다려야 합니다.

3. 적용: 주님을 찾읍시다. (How)

1)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열망합시다.

2) 하나님을 온종일 찾읍시다.

3)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읍시다.

성서일기

소박한 행복

무림리에 살면서 평일에는 출근하고 항상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 토요일이면 소풍길 산책도 하고 포천주민이라 무료로 수목원도 가고 텃밭도 가꾸고 화단도 가꿉니다. 매년 봄이 오기 전 밭에는 어떤 걸 심을까 화단은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 앞 텃밭은 세 집이 나눠 농사를 짓는데, 혼자 텃밭을 가꾸는 것 보다는 같이 밭도 같고 무얼 심을까 의논도 하고 모종도 심고 수확도 같이합니다. 올해 장 권사님은 옥수수 농사를 잘 지으신 뒤 나눠주셔서 맛있게 먹고, 황 사모님은 바질 씨를 뿌려 풍성하게 키운 덕분에 바질페스토도 만들었지요.

저는 밭 끝자락에 메리골드 10개를 사다 심었습니다. 질경이 같은 잡초가 많이 자라 비닐을 씌우고 넓게 심어놓으니 노란 메리골드 꽃들이 봄부터 서리 내리기 전까지 많이도 피었습니다. 처음에는 간격을 붙여 몇 개 더 심을까도 했는데, 여름이 되면서 줄기가 많아지며 더 심었으면 좁았을 뻔했네요. 처음 심어놓고 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는 집 안에 들어왔다가도 다시 가서 보기도 하면서 뿌듯해했어요.

메리골드는 사랑, 희망, 감사의 꽃말을 가지고 있고 벌레가 싫어하는 특유의 향 때문에 벌레가 잘 생기지 않고 뱀도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향을 맡으니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꽃으로는 메리골드 차도 만들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 볶아서 익히다가 태우기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요령이 생기면서 내년에는 더 잘 만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집 근처 잡초들이 많아, 뽑아도 뽑아도 비 한번 오면 원상 복구되는 것을 감안하면, 메리골드 씨를 미리 뿌려 내년에는 잡초 나는 곳을 메리골드 화단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평일은 고단하기도 하고 힘든 날의 연속이지만 주말 무림리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줍니다. 소박한 행복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일상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따뜻한사랑방 임미숙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미가서 5 : 2 인도자
32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87, 12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태복음 2 : 1-12 설교자
106 새싹사랑방
“ 은혜를 누리는 사람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116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참된 기쁨 가운데 머물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은혜를 누리는 사람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에 싸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이자 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을 만나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그들 앞에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반응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였습니다. 특히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고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유일하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나송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쁨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12월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말씀과 활동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배우는 한 주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성경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 성탄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길지만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재밌게 듣습니다.

수요일에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었습니다. 리스는 영원함과 행복, 행운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포인세티아 잎을 열심히 가위질과 풀칠을 하고, 꽃과 스티커로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자연예배당에 장식해두었는데 물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금요일에는 성탄이야기를 연극으로 재연했습니다. 제비뽑기로 역할을 나누고 이틀 동안 틈틈이 연습을 했습니다. 당일에는 복장도 입고, 큰 무대를 만들어서 진짜 같이 연극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씩씩하게 대사를 외치고, 연습한 동선 대로 움직여서 멋지게 연극을 성공했습니다. 아기에수님의 탄생을 보며,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기에수님을 사랑하고,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한 주였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겨울이지만 비교적 따뜻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한 학기를 정리하느라 어린이들도 선생님들도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월요일엔 경기과학기술체험 유랑단에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주셨습니다. VR 기술을 넘어 MR 기술로 가상세계를 체험하며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소통이 가능한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오후에는 재미있는 마술공연으로 신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이에서보면 마술의 기술들을 금방 알 수 있을 거 같았는데 그저 신기해서 입 벌리고 환호하며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로 학과 수업은 모두 마치고 이번 주에 화요일에 있을 학기말발표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 학기말발표회는 어린이들이 주제를 정하고, 어린이들이 한 해동안 배운 것들과 학년별로 기획하고 연습한 것들을 공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습하는 시간부터 공연할 때까지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오셔서 한 해동안 많이 성장한 어린이들을 보시며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화창한 날씨와 함께 멋쟁이들은 속초로 2학기 종강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여행답게, 멋쟁이들이 일정 하나하나를 만끽하고 즐기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겨울의 속초바다에서 멋쟁이들은 대관람차를 타며 사진을 잔뜩 찍었고, 레크레이션에선 바닥을 뒹굴 정도로 웃으며 협동심을 뽐냈습니다. 슬램덩크를 방불케 하던 치열한 농구 시합들, 산악박물관에서는 고산체험과 클라이밍을 즐기다가, 공동체훈련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많은 감정들이 애정 속에서 피어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학년별로 설악산에서 노닐고, 맛있는 뷔페에서 마음껏 먹고난 멋쟁이들은, 밤늦게까지 대화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여행의 마무리인 피드백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간의 성장과 더 깊어진 관계를 체감하고, 졸업하는 사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학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행 중의 멋쟁이들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귀한 경험을 함께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학기말 부모님 면담주간입니다. 멋쟁이들에 대해 한층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공동생활의 원리 원칙 5가지

2023년 1월에 생활공동체는 공동생활의 원리 원칙 5가지를 함께 나누었다. 병원에 가느라 하루를 빠져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휴식, 공동식사만 메모에 남아 있어서 요약해 본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려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본다.

- 공동생산 - 함께 일한다, 각자가 맡은 일을 한다.
- 수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
- 생명운동, 하나님나라를 생태공동체로, 참 생명을 누리자.
- 공동분배 - 일도 분배가 필요 - 매주 돌아가면서 하는 식사 준비
- 분배가 잘되고 있는지, 경제적인 이야기, 개선할 것은?
- 물질의 자유가 어렵다.
- 공동 휴식 - 휴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
- 쉬운 신앙적인 문제이다. 쉬는 날의 삶이 인간 본래의 모습이다.
-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 이타적인 쉬이어야 한다.
- 쉬는게 익숙하지 않다, 바쁨에 대한 회개
-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쉬를 가질 수 있다.
- 공동 식사 - 우리의 정신에 맞아야 한다.
- 식사는 나누는 것이다.
-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 주방 식구들에게 감사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권재만 목사
찬 송 : 335, 365
성 경 : 시편 11편
말 씬 :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 때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술발전>
최근 기술발전과 A.I.의 등장으로 이제는 세상이 순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말고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의 다음세대들>
각 공동체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세계관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삶을 잘 만들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공동체 학교 종강준비>
 - 1) 멋쟁이학교 여행과 면담
 - 2) 어린이학교 학년말 발표회와 면담
 - 3) 꾸러기 학부모연극과 면담

<생활공동체 소식 >

멋쟁이들의 종강여행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종강발표회, 꾸러기학교의 엄마연극등 사랑방공동체 학교들은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사인 공동생활 식구들 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학교의 마무리를 돕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집사님들께서는 멋쟁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가지고 속초에까지 방문하셨습니다.

베다니 하늘 주방에서는 특별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방학은 좋지만 공동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들 입을 모았습니다.

각 처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식구들이 2023년을 기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